



열 가지 사물로 보는
팔레스타인 100년사
6~7면

세계 각지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5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황
2, 3, 4면

건강보험
콜센터 파업
15면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16면



12면에 걸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소식과 분석,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쟁점을 다룹니다

가자시터 시가전 돌입 초읽기

관련 기사 4면

이스라엘군이 패퇴하기를 바라자



유엔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의 노골적 인종 학살 의도를 비판하며 사임하다

찰리 김버

11월 1일 수요일, 얼마 전까지 장관을 지낸 이스라엘 집권당 리쿠드당의 한 국회의원이 가자 지구 전체를 지구상에서 지워 버려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녀는 가자 지구 전체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2주 전까지 이스라엘 공공외교부 장관을 지낸 갈리트 디스텔 아트바르얀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이다. 아트바르얀은 내부 논란을 모두 끝내고 가자 지구의 “괴물들”에 집중하자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촉구했다.

아트바르얀은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분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라. 가자 지구를 지구상에서 지워 버리는 데에 말이다.” 그러면서 이런 바람을 덧붙였다. “가자 지구의 괴물들은 남쪽 국경으로 날아가 이집트 영토로 넘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가자 지구를 지워 버려야 한다.”

그녀의 바람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 상당수(혹은 전부)를 이집트의 시나이 사막으로 내몰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오랜 희망 사항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번 주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네트워크에서 유출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일단 임시 수용소로 내몬 후 시나이 북부의 도시로 영구히 내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작성일이 10월 13일로 돼 있는 그 문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인종 학살이다! 10월 27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서에는 이집트 영토 안에 폭이 수 킬로미터인 “불모지”를 완충 지대로 두는 계획도 들어 있다. 이스라엘 정보부는 이 문서가 진짜임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집트 영토로 추방하는 데에 거둬 반대를 했다.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는 이번 주 초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의 통화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엘시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에서 혁명 과정을 다시 촉발할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1700억 달러에 이르는 이집트의 국가 부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나서면 엘시시의 어조는 바뀔 수도 있다.

중동 전문 언론 ‘미들이스트 아이’는 이와 유사한 계획이 수년 전부터 세워졌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대(大)가자 계획”은 2014년에 이스라엘·이집트 언론에 유출돼 처음 알려졌다. 이는 엘시시

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이었던 듯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지지 속에서 준비됐다.

“이집트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우려가 커지던 와중에, 2011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호스니 무바라크의 한 측근은 이미 2007년에 당시 미국 조지 W 부시 정부가 그 계획을 받아들이라고 무바라크를 압박했다고 시인했다.”

시나이 사막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방한다는 계획은 1948년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던 곳에서 쫓아낸 일을 훨씬 큰 규모로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이런 일은 죽음과 공포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소총 수준이 아니라 F-16 전투기와 대포를 동원할 것이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참상의 규모가 크다는 점은 이번 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뉴욕사무소장직에서 사임한 크레이그 모키버가 강력하

게 비판했다.

모키버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군사 행동이 “전형적인 인종 학살”이라고 했다. 모키버는 이렇게 지적했다. “유럽에서 온 종족-민족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이는 정착자 식민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마지막 남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의 파멸을 가속화하는 단계 말이다.”

“더구나 미국, 영국, 대부분의 유럽 정부들은 이 끔찍한 공격에 한껏 공모하고 있다.”

모키버는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경제·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잔학 행위를 정치적·외교적으로 덮어 주고 있다”고도 했다.

모키버는 “두 국가 방안”이라는 주문은 유엔 내부에서 공공연한 농담거리가 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모키버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종 학살을 입증하는 데서 보통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도다. 특정 집단 전체나 일부를 절멸시키고자 한다는 의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총리, 대통령, 내각 고위 인사들, 군부 지도자들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그런 의도를 밝혀 왔다.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는 일이 인종 학살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쉽다.”

출처 Charlie Kimber, 'Israel's 'genocidal intent is explicit' says UN official as he resigns' (2023. 11. 02) / 번역 김준호

이스라엘 장관이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다

이스라엘 장관이 가자 지구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가능한 선택지의 하나로 거론했다.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 아미하이 엘리아후는 11월 4일 토요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폭탄을 써야 하냐는 물음에 “가능한 일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행기·배·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핵탄두 80~4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리브

와 같은 극우 정당 소속인 엘리아후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잠시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엘리아후는 가자 지구에 식량과 식수, 의료용품을 반입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엘리아후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나치들에게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가자 지구에 무고한 민간인 같은 건 없다.”

이것은 모두를 말살해야 한다는 촉구이자 인종 학살의 메시지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운명이 무엇일지 묻는 질문에 엘리아후는 이렇게 답했다. “아일

랜드에 가도 되고 사막에 가도 된다. 가자 지구의 괴물들이 알아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깃발이나 하마스 깃발을 흔드는 사람은 누구든 “이 지구상에서 더는 목숨을 부지해선 안 된다”고 엘리아후는 덧붙였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엘리아후의 발언이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며 엘리아후를 — 해임이 아니라 — 직무 정지시켰다. 직무 정지시켰다고 해서 이스라엘 정부 최고위층 사이에 이견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스라엘군은 매 순간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 내 모든 사람이 표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 2만 5000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고 이는 핵폭탄 두 개의 파괴력에 맞먹는다고 인권 NGO ‘유럽-지중해 인권 모니터’가 11월 2일에 발표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시나이 사막으로 내몰고자 한다.

출처 Charlie Kimber, 'Israeli minister says they could use nuclear weapons in Gaza' (2023. 11. 05) / 번역 김준호

팔레스타인인 정치수 1만 명이 이스라엘에 인질로 잡혀 있다

2000년 2차 인티파다(항쟁)이 일어난 뒤, 이스라엘군은 1만 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구금해 왔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일 뿐이라고 다라 커미스키가 말한다.

언론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10월 7일 하마스에게 붙잡힌 이스라엘인 200여 명을 석방하라는 요구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점령당한 서안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습격이 더 잦아진 결과,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이 구금됐고,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는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로 두 배로 늘어 1만 명이 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빈번히 구금하고, 기소도 없이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돌을 던진 것 같은 사소한 혐의만으로도 잡아 둔다. 때때로는 어린이도 구금한다.

하마스는 포로들을 구금자라고 칭하는데, 이는 누구는 마땅한 전쟁 포로로, 누구는 범죄자로, 누구는 완전히 무고한 민간인으로 간주하는 이중잣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마스가 지난주 석방한 이스라엘 구금자는 하마스가 그녀를 잘 대해 줬다고 말했다.

85세의 요체베드 리프시츠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챙겨 줍니다. 다양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우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주에 이스라엘 감옥에서는 두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숨졌다. 점령당한 서안 지구의 베이트 사라 마을 출신의 아라파트 함단이 오퍼 감옥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당국은 10월 15일에 그를 체포했다. 바로 그 전날 또 다른 팔레스타인 수감자인 오마르 다라그메도 감옥에서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10월 9일 다라그메와 그의 아들을 서안 지구에서 구금했다. 정치수협회와 ‘팔레스타인 전/현 구금자 문제 위원회’는 그가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라그메가 사망 당일 법정에 섰을 때만 해도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변호사는 말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다라그메를 암살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자신들의 고위 간부였다고 했다.

정치수 협회의 대변인인 아마니 사르하나는 <미들이스트아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료 행위마저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수감자들이 의료 과실을 당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가 완전히 끊겼다는 것입니다.”

지난여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를 점령한 1967년 이래로 약 10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을 잡아들였다.

구금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서 팔레스타인의 남성 10명 중 4명은 이스라엘 감옥에 투옥된 경험이 있다고 언론사 <알자지라>는 밝혔다.



11살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스라엘 경찰에게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있다

2차 인티파다가 분출한 2000년 이후 이스라엘 당국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1만 2000명이 넘는다. 가장 흔한 혐의는 돌을 던졌다는 것인데, 이 혐의로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점령당한 서안 지구에서는 18세 미만의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심문·구금 당하고 그중 최소 700명씩 이스라엘 군사 법정에 매해 기소된다.

1970년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군사 명령은 군사 법원을 설립하고,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모든 형태의 팔레스타인 저항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이 손쉬워졌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방 조치라는 명목, 즉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에 관여했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교환을 위해 죄수들을 잡아 두고 있다

봉쇄된 가자 지구에 폭격을 시작한 2주 사이에 이스라엘 보안국은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을 잡아들였다.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을 시작하기 이전, 이스라엘 감옥에는 52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있었다. 그 중에는 어린이도 170명 포함돼 있었다. 불과 12일 만에 그 숫자가 2배로 불어나 1만 명을 넘겼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은 발표했다.

1985년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쟁에서 잡혀간 3명의 이스라엘 군인과 천 명이 넘는 수감자를 교환했다.

2008년 이스라엘은 자국 군인인 엘다드 레게브와 에후드 골드와서의 유해를 5명의 수감자와 199명의 유해로 교환했다.

그 이후에도 2011년 이스라엘은 군인 길라드 살렛을 구출해 오기 위해 1027명 이상의 수감자 교환 협상을 했다.

이스라엘은 이제 향후 인질을 둘러싼 수감자 교환을 대비해서 감옥에 수감자들을 쌓아두고 있다.

하마스 창립자인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은 1985년 인질 교환을 통해 풀려났다. 하마스 현 지도부 중 최소 6명이 이상이 이스라엘과의 포로 교환으로 감옥에서 석방된 경험이 있다.

재판 없이 구금하고 고문하다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재판 없이 감금돼 있다. ‘행정 구금’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재판 없이 구금하는 정책이다. 사람들은 대개 6개월 정도 구금되는데, 이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다.

사실상 행정구금을 통해 이스라엘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을 수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인 1264명이 행정 구금돼 있다.

고문은 이스라엘 보안국의 “심문 체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이스라엘의 인권 단체 ‘벧셀렘’은 22세 야잔 아라즈비와 20살 무함마드 아라즈비에 대해 보도했다. 그 둘은 동예루살렘 실완에서 2021년 7월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운동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그들이 당한 고문에는 24시간 이상 작은 의자에 수감으로 결박하기, 화장실 이용과 음식·음료를 차단하기, 폭바로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작은 공간에 가두고 잠을 수시로 방해하기 등이 포함됐다.

그 둘 중 한 명은 수갑을 찬 채로 나무 옷장 안에 갇혀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대로 방치됐다. 20일 이후 무함마드는 더 이상 고문을 견디기 힘들어 자신이 돌맹이를 한 개 던졌음을 인정했다.

그 이후에도 자백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해 22일이 넘는 심문이 이어졌다. 야잔은 돌맹이를 두 개 던졌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봉기에 참여하고 경찰관 공격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제2의 나크바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김인식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 11월 6일 현재 기준 가자 지구 누적 사망자는 1만 명을 넘었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병원·학교·난민촌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살던 집이 파괴되거나 전쟁을 피해 피난 온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이 시설들에 머물다 살해됐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을 이집트로 옮기던 구급 차량들을 공습해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

이것이 유엔 총회의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이다. 윤석열 정부는 하마스 규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결의안에 기권해 이스라엘의 만행에 눈을 감았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 등 공공 건물 내부나 그 옆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의 학교와 모스



위중 환자들을 이송하는 구급 차량마저 공습하는 이스라엘

크, 병원을 포함한 민간인 지역에 무기와 군대를 배치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병원·학교·난민촌 등에 있는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뿐 아니라 가자 북부에 억류돼 있는 인질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다. 알카삼 여단(하마스의 군사 조직)

의 아부 우바이다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60명이 넘는 인질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인질 구출에 이스라엘이 관심이 없음을 방증한다.

이스라엘의 목표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임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부가 가자 지구 주민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권고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본지에 실린 ‘유엔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의 노골적 인종 학살 의도를 비판하며 사임하다’를 보시오.)

또,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 아미하이 엘리아후는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제껏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타냐후는 그런 엘리아후를 해임이 아니라 직무정지 시켰을 뿐이다. (본지에 실린 ‘이스라엘 장관이 가자지구 핵무기 공격을 거론하다’를 보시오.) 엘리아후의 발언은 팔레스타인인을 말살하겠다는 인종 청소 메시지다.

현재 이스라엘이 벌이는 가자 지구 지상전도 단순히 하마스 지도부 제거에 맞춰 있지 않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시티를 목 졸라 하마스가 항전하는 북부와 피란민이 모인 남부로 가자 지구를 분리시켰다. 그리고 남부로 피난 간 14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습을 하고 있다.

하마스가 통제하지 않는 서안 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다.

꼬이는 미국의 중동 해법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만행은 국제적 공분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휴전 요구를 반대하며 “인도주의적 일시 전투 중단”을 제안했다. “인도주의적 일시 전투 중단”은 구호 물품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게 하고, 더 많은 가자 지구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시간을 주기 위한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로 비난받지 않고 가자 지구를 계속 공격하게 허용하려는 술책이다.

결국 미국은 소위 이스라엘의 “정당방위”를 지지하면서, 선심 쓰듯이 “인도주의적 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본질은 이스라엘의 제2의 나크바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은 이스라엘에게 퇴짜를 맞았다. 네타냐후는 미국 국무장관 엔터니 블링컨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주의적 일시 전투 중단”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다.

네타냐후는 주저 없는 무자비함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이렇게 말했다. “하마스와의 전쟁은 작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아니다. ... 만약 중동이 ‘테러의 축’에 넘어간다면

다음 차례는 유럽이 될 것이다.”

요르단·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의 외무장관들은 블링컨의 면전에서 “인도주의적 일시 전투 중단” 대신에 휴전을 요구했다.

아랍 지배자들은 이 순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편인 양 행세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재앙적인 철수를 한 뒤 설욕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면 중국과의 대결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장기적 소모전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로감 때문에 미국 권력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을 놓고 지금 분열했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재천명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스텝이 꼬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동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틈을 타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11월 1일 하루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10개 주 118개 도시에 폭탄을 쏟아부었다. 우크라이나 24개 주 가운데 40퍼센트가 공격당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고통만 당하고 있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인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저항도 있다.

지금 이스라엘군은 가자 시티를 포위하고 조만간 시가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마스 대원들을 찾아내고 지하터널 등 하마스의 군사 시설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며 항전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가자 지구 시가전에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군을 패퇴시키기를 강렬히 바란다.

전 세계 피억압 대중의 자신감과 사기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승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굴욕을 안겨 줄 것이고 네타냐후의 극우 정부를 몰락시킬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제국주의에 일격을 가할 것이다.

1970년대 중엽 베트남 민중이 미국을 상대로 거둔 승리가 ‘베트남전쟁 증후군’으로 이어졌듯이 말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강인한 의지와 전투성을 가지고 이스라엘군에 저항하고, 중동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국제 연대가 확산된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세를 좌절시킬 수 있다.

세계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시위 계속 성장 중!

찰리 킴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가자 지구 학살에 반대해서 펼쳐 일어나고 있다. 지배자들은 그 운동의 위력과 잠재력을 축소하려 한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륙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역대 최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2003년 미국·영국의 이라크 침공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전·반제국주의 시위가 벌어졌다.

예컨대, 11월 5일 인도네시아에서는 100만 명 이상(집중팔구 200만 명)이 자카르타 도심에 모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래 벌어진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작은 시위들이 벌어진 바 있지만, 이번 시위는 어마어마했다. 정부와 종교 기관들이 그 시위를 승인했다. 발언자들 중에는 외무장관 레트노 마르수디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위의 특별한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타격을 줄 방법을 찾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이스야나 아르타리니는 〈아랍 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저 개인으로서는 사실 무력하다고 생각해요. 시위 참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용납’했을까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이번 인종 학살을 용납하는 편에는 서지 마십시오.”

터키에서는 미군 주둔 기지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집회를 해산시키려 했다.

터키 동남부 인시를릭 공군 기지 바깥에서 벌어진 그 시위를 조직한 것은 인도주의 구호단체 IHH였다. IHH는 2010년에

가자 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선 함대를 이끌었던 단체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 구호선들을 공격해 승선자들을 살해해서 국제적 공분을 샀다.]

터키의 시위들이 워낙 컸던 탓에 터키의 억압적인 지도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전보다 강경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에르도안은 이스탄불에서 대규모 시위에 참가했는데 그 시위는 참가자가 15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을 “점령 세력”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 “전범”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그 시온주의 국가와 맺은 계약과 조약을 모두 취소시키지는 않고 있다.

산업 쟁의

일부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산업 쟁의를 조직하고 있다.

벨기에 운수 노동조합들은 지난주에 조합원들에게,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수품 취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7개 노조가 참여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팔레스타인에서 인종 학살이 자행되는 지금, 벨기에의 여러 공항에서 노동자들은 군수품이 전쟁터로 향하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는 즉각 휴전을 촉구한다. 또 벨기에 정부가 일관성을 보일 것과, 벨기에 공항을 통해 무기가 운반되는 것을 용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으로서 우리는 평화를 요구하는 운동에 연대를 선언한다.”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는 일군의 노동자들이 지지자 수백 명과 함께 전투적 행동을 벌여, 군수품을 싣고 이스라엘로 향할 예정이었던 선박 케이프 올란도 호의 출항을 막았다.

워싱턴, 30만 명이 바이든 규탄

제국주의의 심장부인 워싱턴DC에서는 4일 토요일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프리덤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시위대는 백악관으로 행진하며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과 가자 지구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바이든, 바이든, 너는 숨을 수 없다! 너를 인종 학살자로 기소할 것이다!”, “인종 학살범 조 바이든은 물러나라!”는 구호가 행진 대열에서 터져 나왔다.

미국 무슬림연맹의 마디 브레이는 대규모 시위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즉각 휴전입니다.”

미국의 반전 연합체 ‘앤서’(ANSWER)의 집행 조직자 브라이언 베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무너뜨리는 투쟁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연설했다. “40년 전 이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워싱턴DC에 모여 남아공의 인종차별적이고 파시즘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무너져야 하고, 우리가 그 몰락에 일조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정권은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에게서 옵니다. 자매·형제들이여, 우리는 메시지를, 아

주 준엄한 메시지를 조 바이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종 학살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인종 학살의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시인 무함마드 엘쿠르드는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당신을 잡으러 온다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당신을 학교에서 내쫓는다면, 당신을 제명한다면,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운동의 동력이고, 투쟁의 일부입니다.

“제국은 침묵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침묵하더라도 우리를 박살낼 것이고, 침묵하더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지난 엔나스리는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을 보며 2024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대표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세대는 선출된 관료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도시 수십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출처 Charlie Kimber, ‘Across the world Palestine protests keep on growing’ (2023.11.6) / 번역 김중환

그밖의 국제 시위 소식들

- 말레이시아: 수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그중 한 시위는 트렝가누 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졌다.
-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3만 명 이상이 행진했고, 시드니에서 1만 5000명 이상이 행진했다.
- 일본: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로 수천 명이 도쿄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근

처에서 행진했고,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중단을 요구했다. “팔레스타인 해방”, “인종청소 반대” 등을 외쳤다.

- 프랑스: 6만 명 이상이 파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벌였고, 그밖에 30개 도시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섰다. 파리의 대중교통 노동자 파리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충돌은 프랑스 노동자들과 무관한 일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 우리는 이 투쟁들을 직장 안으로 갖고 들어와 노동자들이 제국주의에 맞서 집단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 차원에서 소심하게 대응하는 것은 그만해야 합니다.”

- 캐나다: 4일 토요일 토론토와 25개 도시에서 4만 명 이상이 행진했다. 시위대는

자유당 정부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규탄했다.

- 독일: 탄압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서 약 2만 명이 행진했고, 뒤셀도르프에서 3만 명이 행진했다.
- 이밖에도 세네갈, 남아공, 루마니아, 이탈리아, 칠레, 베네수엘라에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다.

열 가지 사물로 보는 팔레스타인 100년사

팔레스타인은 100년 넘게 식민 점령과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았다. 한 세기 넘는 억압과 저항의 역사를 열 개의 사물을 키워드로 소피 스콰이어가 살펴 본다.

거짓 선언문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의 근원은 대영제국의 제국주의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에 영국은 유대 민족 국가를 수립하고 싶어했던 시온주의자들에 지지를 표했다. 이것이 벨푸어선언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영국의 지배에 굴종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게릴라 전투 조직을 만들어 영국과 시온주의 세력에 저항했다. 그런 조직들의 지도자 중 하나인 이즈 알딘 알카삼은 농민과 노동자로 구성된 전투 부대를 이끌었다. 일부 팔레스타인 저항 투사들이 시온주의자들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반면, 알카삼은 영국에 맞서 싸우는 것도 핵심적이라고 믿었다.

현재 저항 세력 하마스 산하 전투 부대의 이름은 바로 이 알카삼에게서 따온 것이다. 알카삼은 1935년 영국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알카삼의 장례식엔 3000명이 참석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노동계급 사람들이 투쟁을 이어가도록 더한층 고무했다.

1936~1939년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영국과 시온주의자들에 맞서 또 한 번 대규모 항쟁을 일으켰다. 저항은 농촌에서는 주로 무장 투쟁의 형태로 벌어졌고, 노동자들은 1936년에 일으킨 총파업을 몇 달을 이어갔다. 항쟁은 쉽사리 분쇄되지 않았다. 영국 측 통계에 따르면 영국 군경은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아랍인 2000명을 살해하고 10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편지

“사라졌다가” 나중이야 다시 발견된 편지 한 장이 있다. 이 편지에는 1948년에 팔레스타인인 85만 명이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날 때 벌어진 실제 참상이 잘 드러난다. 이 편지는 팔레스타인 마을 알다와이마 학살에 참가했던 시온주의자 병사의 증언을 다루고 있다. 발신인은 S 캐플런이고 수신인은 <알하미시마> 신문사 편집자 엘리제르 페리였다.

캐플런은 이렇게 썼다. “거기엔 전투도 없었고 저항도 (이집트인도) 없었습니다. 1차로 투입된 정복자들이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 아랍인 80~100명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곤봉으로 두개골을 부셔서 죽였어요. 사망자가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차로 투입된 (이스라엘)군 부대는 이 증언을 한 군인이 속한 소대였습니다. 이 소대의 군인 한 명은 아랍 여성을 강간한 후 사살했다고 으스스했습니

다.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랍 여성이 군인들이 식사한 뒤뜰을 청소하는 데에 동원됐습니다. 이 여성은 하루이틀 정도 군인들을 위해 일해야 했고, 그 후 군인들은 그녀와 아기를 모두 쏘 죽였습니다.

“증언한 군인은, 부대 사령관이 교양 있고 예의 바르며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악귀 같은 살인마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폭풍 같은 전투 와중에 흥분해 어찌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체계적 추방·파괴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그 동맹들은 알다와이마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는지를 은폐하려 했다. 시온주의 무장 집단이 고작 30명을 살해했을 뿐이라고 한 자들도 있었다. 이는 나크바(대재앙)를 은폐하려는 더 큰 공작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총장 하산 마흐무드 이흐데입은 실제 희생자 수를 145명으로 추산했다.



열쇠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벵구리온은 팔레스타인 “늙은이들은 죽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잇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잊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 고향 집의 열쇠와 집문서를 고이 간직했다.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주택·토지·소지품을 약탈한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승인하는 법을 이후 제정했고 이 법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1950년 제정된 이 ‘부채자 소유에 관한 법률’은, 살던 곳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인 난민들의 주택과 소유물을 시온주의 정착민들끼리 분배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비호하는 정착민들도 이와 유사한 법을 동원해 팔레스타인인들의 토지와 주택을 강탈한다.

이들의 수법은, 고고학적 목적이나 관광 목적을 들어 토지를 강탈하는 것부터 정착민들이 자기 농장을 제멋대로 넓히게끔 장려하거나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미국 달러화

1967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경비견 구실을 할 능력을 입증했다. 이 시온주의 국가는 1967년에 이집트·요르단·시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병사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기꺼이 늘려 줬다.

1960년대 동안 미국은 매년 약 2000만 달러의 군자금을 이스라엘에 차관해 줬다. 1970~1974년에 이 액수는 약 4억 달러로 뛰었다. 이 군자금 덕에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 동(東)예루살렘, 가자 지구

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을 추가로 30만 명 추방하고 이미 1948년부터 피난민이던 사람들 13만 명을 살던 곳에서도 쫓아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 당국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내 700년 역사가 있는 모로코 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로부터 고작 24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불도저로 이 구역을 모두 밀어 버렸다. 이 점령의 희생자 다수가 이웃 나라 요르단에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2636

이집트

1519

아프가니스탄

1476

베트남

1346

이라크

917

한국

881

영국

816

인도

768

튀르키예

747



이스라엘은
2차대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외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 (단위: 억 달러)



서안 지구 장벽에 그려진 ‘한달라’ 팔레스타인의 불굴의 저항을 상징한다

돌맹이

“돌맹이 봉기”라고도 불리는 제1차 인티파다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었다. 이 ‘다윗 대 골리앗’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상대를 분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1987년 12월 이스라엘군은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이 탄 차를 깎아몽개 팔레스타인인 네 명을 살해했다. 그중 세 명은 자발리아 난민촌 거주자들이었다.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장례식은 분노의 시위로 발전했다. 제1차 인티파다가 발발해, 이후 5년 동안 계속됐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수만 명씩 행진했고, 이스라엘 군경을 상대로 돌맹이와 새총뿐 아니라 로켓과 화염병으로 싸웠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던 [팔레스타인인] 노동자들은 점령지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연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여성들은 이 항쟁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제1차 인티파다 당시 16세 소녀였던 라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 또래 소녀들 모두가 제1차 인티파다 때 투쟁했어요. 남성들과 꼭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도로를 봉쇄하고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죠.”

올리브 나무 가지

평화 프로세스는 팔레스타인 항쟁에 있어 매년 후퇴만 가져다줬다. 반면 이스라엘은 합의가 맺어질 때마다 그 단물을 빨아먹었다. 제1차 인티파다 이전인 1974년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는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했다.

아라파트는 이렇게 연설했다. “오늘 저는 올리브 나무 가지와 자유 투사의 총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버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시 아라파트의 목표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단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8년이 되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국경선을 1948년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꿈을 접었다.

대신 아라파트는 이스라엘 국가가 존속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로

부터 몇 년 후 이 발언은, 5년에 걸친 치열한 항쟁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 선물이 됐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에 맞서는 이들의 단결을 깨뜨릴 방안이 필요했다. 해법은 오슬로 협정이라는 형태로 제시됐고, PLO의 아라파트와 이스라엘은 1991년에 이 협정에 조인했다.

PLO 지도부는 이 협정이 팔레스타인 독립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기 위해 한때는 무장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실제로 합의해 준 것은 재앙적인 타협이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는 구실은 이스라엘 국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와 협력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이다.

알아크사 사원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인 대부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협정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약당했고 팔레스타인 경제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종속됐다. 이른바 ‘역사적 합의’가 자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데에 분노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제2차 인티파다 ‘알아크사 항쟁’을 일으켰다.

항쟁의 계기는, 2000년 당시 이스라엘 야당이던 리쿠드당의 대표 아리엘 샤론이 도발하려는 의도로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슬람의 성지]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한 일이었다. 샤론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 그의 경호대는 사원을 지키던 팔

레스타인인 일곱 명을 살해했다.

제2차 인티파다는 눈 깜짝할 새 점령지 전역과 이스라엘로 번졌다.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총파업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국가에 맞선 무장 저항이 늘었다.

제2차 인티파다 과정에서 하마스가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약속한 평화 협정[2000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결과는 없으니만 못했고, 이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는 정당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압력에 타협하지 않았다.

장벽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가두고, 굶기고, 갈라놓고, 이들의 저항을 분쇄하려 동원한 수법 중 하나는 장벽 건설이었다. 2002년에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장벽 건설이 시작됐다.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에워싸고 가두기 위한 것이었다.

예컨대 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은 서안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돼 있다. 8미터 높이의 흉물스런 장벽은 팔레스타인인

들의 농지를 파괴하고 수원(水原)을 부숴 버렸다. 서안 지구 최대의 정수 처리 시설도 이때 부숴졌다.

이스라엘이 이런 억압 조치들을 동원했음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균열을 뚫고 저항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인 만화가 나지 알알리 한달라가 창조한 만화 캐릭터 한달라의 그림이 장벽에 온통 그려져 있다. 녀마를 걸친 열 살 소년을 형상화한 이 그림은 팔레스타인의 불굴의 저항을 상징한다.

팔레스타인 깃발

2021년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은 인종 분리적 검문소, 국경, 폭력으로 단합된 저항을 분쇄할 수 없음을 보여 줬다. 2021년 5월 팔레스타인인 수십만 명이 파업을 벌이고 이스라엘, 서안 지구, 가자 지구에서 시위에 참가했다.

이스라엘의 공식 국경 안쪽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 참가자들은 목숨을 걸고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

었다(이스라엘에서 이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지금도 서안 지구의 용감한 시위 참가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갇힐 위험을 무릅쓰고 가자 지구와 연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더는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며 이스라엘, 시온주의, 그들의 제국주의적 후원자들에 맞서 거리 시위를 벌이는 이유다.

폭탄

10월 31일 화요일, 이스라엘 국가는 폭탄을 이용해 제1차 인티파다의 발생지인 가자 지구 내 자발리야 난민촌을 파괴하려 했다. 이스라엘의 폭탄으로 난민촌에는 지름 12미터의 구멍이 패였다. 팔레스타인인 최소 50명이 살해되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

미국 국방부 전직 고위 관료인 마크 갈라스코는 이 파괴를 낳은 폭발의 흔적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투하된 폭탄의 폭발 흔적과 비슷하다고 했다. 갈라스코는 1톤 GBU-31 폭탄이 투하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이 폭

탄은 비행기에서 투하된 후 유도 기술을 이용해 목표물로 날아간다. 이 경우에는 자발리야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 목표물이었던 것이다.

이런 종류의 폭탄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판매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군수기업이 제조하기도 했다. 자발리야 난민촌에 폭탄을 투하하고 얼마 뒤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퍼부를 GBU-31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으스대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과 새로운 중동전쟁의 위험

이원웅

이 기사는 11월 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대폭 증보한 것이다.



영상 보기

지난 10월 7일 하마스와 그 밖의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 조직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그 공격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동에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경고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와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은 오히려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29일(일) 네타냐후는 “전쟁의 두 번째 단계”를 선언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 지상군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네타냐후는 “휴전은 없을 것”이고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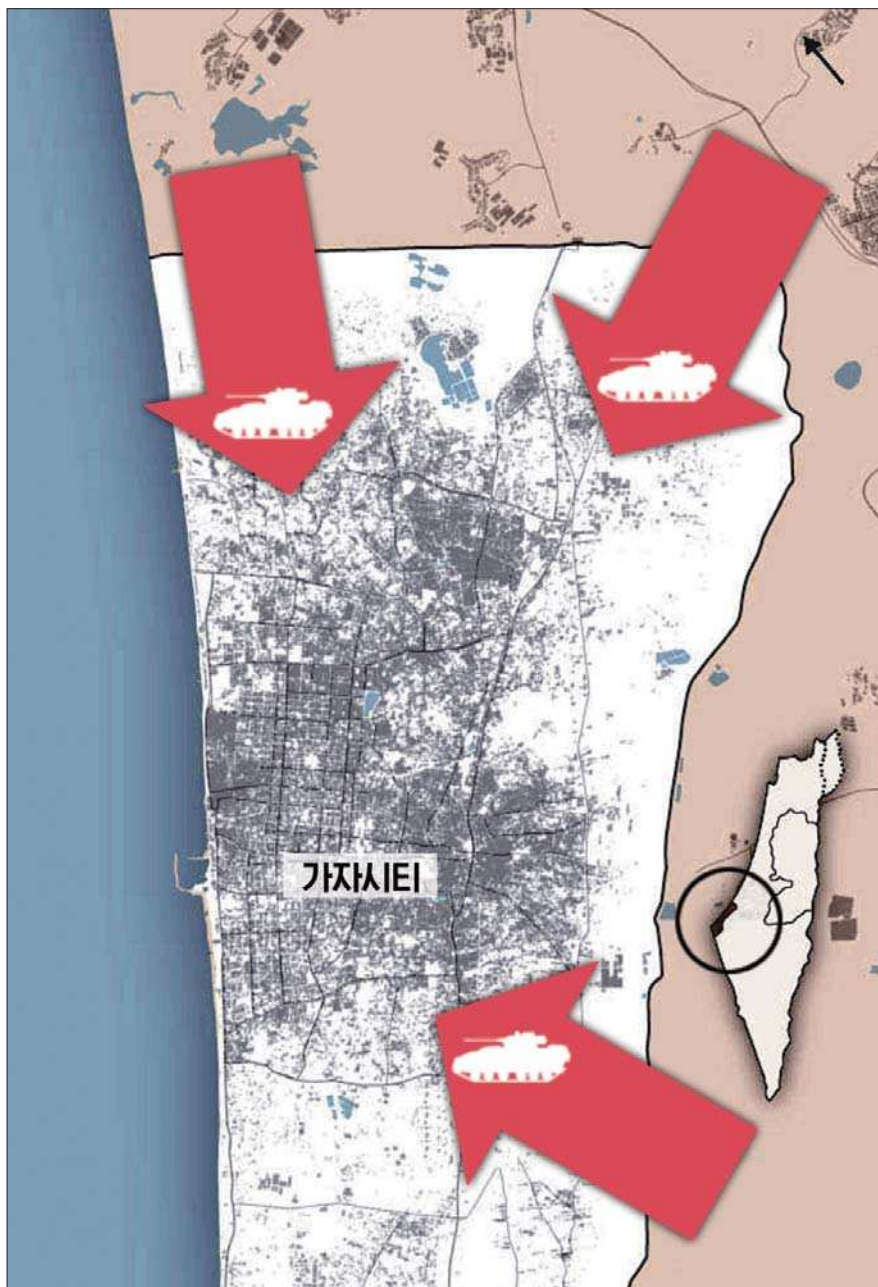
지상전 개시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 지구에 공격을 퍼부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사회기반 시설들을 파괴했다. 지상전은 더 많은 희생을 낳을 것이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사망자는 1만 명, 부상자는 2만 5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사망자의 73퍼센트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었다. 유엔에 따르면 150만 명, 즉 가자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피란민이 됐다. 연료 부족으로 병원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

강탈 국가 이스라엘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온건 개혁주의자들은 매스 미디어를 거스르지 못하고 양비론을 취하거나 아니면 반쯤 타협한 팔레스타인 연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위 하마스의 만행에 관한 온갖 언론 보도가 넘쳐나, 10월 7일 사건의 진정한 성격을 흐려 버렸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도 하마스의 공격을 문제삼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사태의 근본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지구 침공 경로

10월 7일 하마스와 그밖의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 조직들의 공격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동에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경고였다

적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했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가 이런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충돌할 때는 중립적이거나 양비론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물론 참여연대 같은 입장을 단순한 양비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 다만, 자칫 양비론으로 빠질 타협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과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식민 정착자 국가에 맞서 무장 투쟁을 할 권리를 지지해야 하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무장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더구나 하마스

의 승리는 이스라엘과 미국 제국주의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휴전 요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 요구는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중단하라는 뜻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마스에 무기 내려놓으라는 요구도 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시온주의 식민 정착자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구조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탈과 억압에 바탕을 둔 국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그 땅에서 먼저 살던 아랍인들을 강제로 내쫓으면서 건설한 국가다. 건국 당시 아랍인 80만 명이 쫓겨났고, 그 뒤에도 점령과 강탈이 계속됐다.

그 일은 강대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온주의자들은 영국과 미국 등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으며 중동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앞장서 지키는 경비견 구실을 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이스라엘은 줄곧 미국 대외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제국주의의 맥락 속에서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끝없는 전쟁을 벌이거나, 이스라엘 극우의 요구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절멸 또는 완전히 내쫓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10월 7일 공격은 이스라엘 국가가 자국 유대인들의 안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시온주의는 자신이 내세우는 역사적 목표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하마스에 포로로 잡힌 ‘인질’들의 운명도 이를 잘 보여 준다. 현재 그들의 가족들은 네타냐후에게 석방을 위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실 그 포로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네타냐후가 전쟁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을 풀어 주면 된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길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포로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Activist

10월 18일 한 팔레스타인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가자 시티 공습으로 다친 딸을 대피시키고 있다

제2의 나크바 시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많은 언론들은 '두 국가' 방안이 유일한 현실성 있는 해법인데 그 해법을 실현할 정치 세력이 없는 게 문제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다. 특히 이스라엘 극우를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스라엘 극우의 부상은 시온주의 국가라는 이스라엘 국가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오면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려올 수밖에 없다. 그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내쫓지 않는 한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 사회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느 정당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상시적 전쟁 상태에 있게 됐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 내부에 계급 분단과 불평등이 있다. 게다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로 불평등이 심화돼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식민 정착자 사회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불평등이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강탈과 점령에서 얻는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다름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식민 정착자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상시적 전쟁 상태와 이스라엘 사회 내부 모순의 심화가 맞물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갈수록 강경

한 시온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현재 네타냐후의 부패한 극우 정부가 등장한 배경이다.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의 공격 전까지 바이든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트럼프의 지원 아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바레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다. 이란을 견제하려는 걸프 연안국들과의 관계를 좁혀 온 것이다.

비록 아랍 정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표명하는 연대는 립서비스 이상인 적이 없었지만, 이런 관계 정상화는 마치 팔레스타인 문제를 없는 셈 취급하는 것이다.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도 추진했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가자 지구 봉쇄에 동참시켜 하마스를 더욱 압박하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시온주의 정착자들과 이스라엘군은 네타냐후 정부의 고무를 받으며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정착촌 건설을 강화했다.

그러나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 공격은 이스라엘 군대와 정보 기관에 치욕을 안겨 줬다. 그들은 그 공격을 예상하지도, 신속하게 물리치지도 못했다.

이스라엘의 인종분리주의 통치자들

[11월 6일 현재]

사망자 1만 22명
부상자 2만 5480명
피란민 150만 명 이상

지상전으로 가자 지구의 희생 더 늘어날 것

은 이 치욕을 처절하게 응징하기를 바라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하에서 영향력을 크게 키워 온 이스라엘 극우는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거 몰아낼 기회로 만들려 한다. '대대적 강제 이주'라는 환상을 실현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의 이집트 국경으로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극우는 이를 그들의 환상을 실현할 첫 단계로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국경을 열라고 이집트를 압박하고 있다. 서안 지구에서는 시온주의 정착자들이 베두인 유목민들을 대거 쫓아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제2의 '나크바'가 새로운 중동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스라엘과 서방 강대국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서방 강대국들의 대응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직후 미국과 유럽연합, 서유럽의 주요국 정부들은

모두 서둘러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말로만 지지를 표명한 게 아니라 군사력을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은 두 함모 전단과 2000명의 해병대 병력, 방공 체계를 지원했다.

바이든 정부는 하마스와 푸틴을 엮어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방의 위선을 돋보이게 할 뿐이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공과 민간인·인프라 공격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은 부정하고 이스라엘의 만행에 눈감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취약한 처지에 있다.

미국의 중동 장악력은 2000년대 이래 점점 약해졌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테러와의 전쟁'이 실패하면서 미국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과의 대결로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지만 종종 중동에 발목이 잡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패배가 낳은 공백을 이란 같은 역내 강국과 중국·러시아 같은 세계적 강국이 메우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친서방 아랍 국가들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이를 통해 중동에서 이란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을 미국 쪽으로 더 당기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이 계획을 어그러뜨렸다.

만약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번 전쟁에 참전하면 이스라엘은 상당한 애를 먹을 것이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배치한 자국 군대와 기지들을 지키러 서둘러 나섰다.

그러나 미국이 시리아나 예멘 같은 곳에서 벌인 폭격과 같은 일들은 미국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더 큰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중동에 군사력을 보낸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이기도 한다. 중국은 중동에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세계적 차원에서 제국주의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가자 지구 민간인 피해를 줄일 '인도적' 조치를 도입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뜻대로 사태가 순탄히 통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연대 운동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공격은 서방 제국주의에 위협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대중을 다시 거리 항의에 나서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는 전 세계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촉발했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시온주의 비판을 유대인 배척으로 모는 운동을 벌여 왔는데, 최근 그 공세를 강화한 데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불법화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성장해 왔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탄압과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 물결이 새로 일고 있는데도 그렇다.

우리는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

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벌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그들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유대인 배척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점점 더 많이 참가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행을 벌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여는 데 적극 동참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것이다.

현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대중적 국제주의 정서의 놀라운 고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서는 시온주의를 뺄 뺄하게 두둔해 온 자국 권력자들에 대한 깊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연대는 거리 시위로 표현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서유럽의 경우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에 대한 지지가 대학들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스라엘 반대와 팔레스타인 지지 행동은 강력하고 급진적인 학생 운동을 리부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지지 정서의 고양은 여러 나라에서 거대한 운동을 촉발했다. 심지어 탄압이 극심한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혁명적 좌파는 그런 운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그 운동은 혁명적 좌파를 강화할 진정한 잠재력이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전략

앞서 강조했듯이,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는 한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 국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단일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때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국가하에서는 아랍인이든,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이런 목표를 이루는 필수적 조건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만으로는 막강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기 어렵다. 이스라엘은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경비견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려면 아랍 세계 전체의 힘이 동원돼야 한다.

그러나 아랍 정권들은 그런 투쟁을 벌일 능력이 없음을 오래 전부터 스스



사진 출처: 백악관

미국은 이스라엘에 일시적 전투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기본적으로 옹호·지원하고 있다. 10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우)를 만난 바이든(좌)

로 입증해 왔다. 중동의 각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제국주의 질서에 협력해 왔고, 부패하고 억압적이다.

사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성장은 중동 정권들에 위협이 됐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그 정권들의 무대응이 분노의 초점이 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처지는 현지의 사회적·경제적 요구와 결합되기 쉬웠다.

그러나 1960~1970년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이끈 PLO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아랍 정권들의 지지와 지원에 의존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PLO가 성공하지 못한 주된 이유이다.

예컨대 1960년대 말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요르단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런 조건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조직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PLO도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침공해 PLO의 기지를 박살내려 했다. PLO는 요르단 국왕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대포를 쏘 달라고 요청했지만 요르단 국왕은 이를 물리쳤고, 오히려 PLO에게 퇴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PLO는 퇴각하지 않고 수백명의 게릴라군으로 이스라엘군을 격퇴했다. 이 승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크게 고무했고, PLO를 이끈 조직인 파타는 엄청난 영향력과 위신을 누렸다. 한때 나세르에 열광했다가 1967년 나세르의 전쟁 패배로 실의에 빠졌던 사람들도 파타로 몰려갔다.

그 결과 1970년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은 요르단에서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요르단 정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해방의 필수적 조건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려면 아랍 세계 전체의 힘이 동원돼야 한다

는 매우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파타는 한사코 요르단 정권과 맞서기를 거부했다. 결국 요르단 정권이 먼저 위협을 분쇄하려 나섰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다. 당시 학살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수는 5000명 ~ 2만 명으로 추산된다. 요르단에서 쫓겨난 PLO는 이후 레바논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은 처음에 단일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랍 정권들에 의존하려 했기 때문에 패배와 후퇴를 거듭했다. 운동 지도부는 결국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통해 '소국가'를 인정받는 것을 현실적 방안으로 여기게 됐다. '소국가'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1987년 팔레스타인 대중 항쟁(인티파다)이 벌어지자 미국은 항쟁을 달래려고 협상을 중재했다. PLO는 '두 국

가' 방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두 국가'방안의 실상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허울 아래 강탈과 점령이 지속되는 것에 불과했다.

하마스는 이런 배신적 타협을 비판하면서 부상했다(1987년 창립). 그러나 하마스도 주변국들과 강대국의 협상에 의존하는 약점이 있다.

물론 하마스가 파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마스의 입장에는 모순이 있다.

예컨대 처음에 하마스는 그들의 강령 문서에서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를 전부 되찾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그러나 2017년에 개정한 강령 문서에서는 1967년 전쟁으로 그어진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동시에 하마스는 그 문서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한다. 모순인 것이다.

게다가 하마스 지도자들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휴전 방안을 종종 거론해 왔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마스가 이런

모순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을 지원하는 카타르 등 주변 중동 국가들의 압력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2011~2013년 아랍혁명을 둘러싼 것이다. 당시 하마스는 시리아에 기지를 두고 있었는데, 시리아 혁명이 일어나자 오히려 그 혁명을 지지했다. 덕분에 시리아에서 쫓겨나고 이란이 지원을 끊었는데도 말이다. 하마스는 당시 이집트 혁명으로 들어선 무함마드 무르시의 무슬림 형제단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정부는 기존의 국제 협정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거기에는 하마스가 거부해 온 오슬로 협정도 포함돼 있다.

무슬림 형제단 정부는 얼마 안 가 엘시시의 군부 쿠데타로 무너졌다. 물론 엘시시 정부는 하마스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엘시시 정부도 몇 년 전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재자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최근 하마스는 이란 대표단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이 또한 주변국들과 강대국들의 협상에 의존하는 노

▶ 12면으로 이어짐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사진 출처: 가이 스톨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대중적 국제주의 정서의 놀라운 고양을 나타내고 있다. 50만 명이 모인 영국 런던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 11면에서 이어짐

보론 1 이스라엘 노동계급이 시온주의에 반대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선의 연장이다. 이런 행보는 대중 투쟁을 고무하는 데 역효과를 낼 것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급진적 투사들이 등장한 것에 주목한다. 2021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항쟁을 계기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 세대 투사들은 ‘두 국가’ 방안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추잡한 배신을 거부하고 과거의 인티파다 같은 대중 항쟁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아랍 세계의 노동자들이 도시 빈민과 농민을 이끌고 아랍 정권들을 타도하는 사회주의적 혁명이 일어나 성공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승리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 2011~2013년 아랍 혁명과 더 근래에는 알제리와 수단에서 일어난 항쟁들이 중동 지역의 혁명 가능성을 훑듯 보여 줬다.

현재 아랍 대중은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전쟁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며 다시 거리 항의에 나서고 있다. 탄압이 극심한 이집트 정권조차도 대중의 분노에 밀려 시위를 허용해야 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이런 시위는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 번질 잠재력이 있다.

한국의 우리는 연대를 꾸준히 건설하며 중동 혁명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일부 좌파들은 이스라엘 노동계급을 시온주의에 맞선 투쟁의 동맹이 될 수 있는 사회 세력으로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체적 조건을 보면 이스라엘 노동계급이 시온주의에 도전하지 않는 데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미국과 같은 정착민 사회에서는 농장주들이 계약 노동자나 노예들을 데려가 그들을 착취하는 식으로 정착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시온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강탈을 수행하고 거기서 혜택을 누렸(린)다. 이스라엘에서는 노동계급의 형성 자체가 강탈과 배제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이를 위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시초 축적 과정에서 생긴 이득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시온주의 국가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국가 자체가 그런 과정을 위해 조직됐다.

이스라엘이 중동 한가운데서 선진국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릴 만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 덕분이었다.

1960~70년대에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간 돈의 70퍼센트는 대가를 돌려줘야 되는 투자가 아닌 일방적 원조였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가 당시와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는 점령과 강탈, 서방 제국주의 경비견 구실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거대한 무기 부문이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다. 1인당 무기 수출액은 압도적인 1위이다. 이는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의 갑절에 해당한다.

강탈의 혜택

현재 이스라엘에서 고용의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테크 부문도 군사 부문과 점령, 감시, 통제에 의해 추동된다.

강탈 자체도 경제적 이득이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노동자들도 저렴한 주택 등의 혜택을 본다.

이스라엘에서 사업 기회, 출세 기회, 고용 기회 전반이 이스라엘군과 점령에 참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

다. 나머지 부문들은 군대에 의해서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회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돌아간다.

이런 강탈과 점령의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면 이스라엘 노동계급도 물질적 조건이 어느 정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교도관들의 생계가 교도소의 존재에 달려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교도소가 없어진다면 교도관들의 물질적 조건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강제로 해체하고 단일한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를 강권해야 한다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을 마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두 내쫓자는 것처럼 곡해하거나 오해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가 전복되더라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부분 돌아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가 타도될 때에만 이스라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다른 인민을 억압하는 인민은 스스로도 해방될 수 없다.



11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BDS에 대한 호응은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자 봉쇄에 항의하는 2010년 호주의 시위대

사진 출처 John Englar (블라카)

보론 3 BDS 운동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BDS 운동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투자철회·제재를 촉구하는 국제 보이콧 운동이다. 2005년에 시작된 BDS 운동은 팔레스타인의 고립과 기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 지도부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들은 PLO를 우회하여 BDS 운동을 벌였다.

역사를 보면, 보이콧 운동이 국제 연대가 모이는 초점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보이콧 운동이 그 자체로 결정적 타격을 가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해외에서 연대가 건설되는 초점 구실을 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맞선 보이콧 운동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보이콧 요구가 지지의 초점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보이콧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50년대였지만, 그 운동이 서구 세계에서 실질적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0~30년 후였다.

2005년에 시작된 BDS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특히,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운동과의 교류가 이를 가능케 했다.

아직 한국 내에서는 BDS 운동이 그만큼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의식이 아직 무르익지 않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류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배경으로 비교적 최근에야 증대한 조건과 관련있을 것이다.

BDS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지지자들이 자기 속한 공간과 기층에서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전에 BDS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한 것은 캠퍼스에서였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간에서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현재 팔레스타인 연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교훈은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팔레스타인들을 비롯한 아랍인들과 협력해 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태에 부합하는 분석과 함께 의식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론 2 휴전 요구의 양면성

현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일각에서 제기되는 휴전 요구는 주로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그 요구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 자신은 휴전을 거부하고 있다.(물론 미국은 일시적 전투 중단을 이스라엘에 [허용]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장의 상황은 변화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가전에서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휴전 요구는 하마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주장도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협상을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불필요한 후퇴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전열을 가다듬

을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런 점에 비춰 보면 우리가 보기에 어느 때나 외칠 수 있는 최상의 요구는 '팔레스타인들에게 연대하라'일 것이다.

평화주의적 휴전론 이면에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깔려 있는 듯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일반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하마스의 '무모함'과 '오만' 때문에 보통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시운주의의 생략적 호전성 때문에 이 전쟁은 단지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의 전쟁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리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독일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신당은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도움 될 위험 있다

데이브 가드너 베를린에서

독일의 좌파당이 분열했다. 좌파당 지도자의 한 명인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을 선언했다.

바겐크네히트의 신당이 채택할 정치론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좌파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우경적”이라고 규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보수 정당들과 사민당이 오랫동안 취해 온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바로 원칙을 훼손하고 후퇴하는 것이다.

바겐크네히트는 인종차별에 맞서 원칙 있게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영합해 온 전력이 있다.

좌파당 국회의원 38명 중 10명이 가칭 “이성과 정의를 위한 BSW”라고 하는 바겐크네히트의 신당에 합류했다.(BSW는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의 약자다.) 그 후 처음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12퍼센트가 그 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가 여론 조사에서 22퍼센트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바겐크네히트의 신당

이 좌파에게 획기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많다.

그러나 바겐크네히트의 정치에는 문제점이 많다. 바겐크네히트의 탈당을 좌파적 분열로 보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바겐크네히트는 최근에 《독선자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바겐크네히트는 좌파당이 “기괴한 소수자들”의 정체성 정치를 지지하는 데 골몰하느라 전통적 지지층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벌이는 모든 사람을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억압에 맞선 투쟁의 중요성을 완전히 기각하는 것이다.

바겐크네히트는 노동계급이 마치 백인 남성 독일 출생자로만 이뤄져 있고, 이주민들과 기후 활동가들에게서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말한다.

바겐크네히트는 파시스트들이 핵심부에 있는 AfD의 부상이 이주민 유입 탓이라는 주장을 지속해서 펴 왔다.

바겐크네히트는 입국하는 이주민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베를린에서 25만 명 규모로 열린 인종차별



독일 좌파당 탈당파를 이끈 자라 바겐크네히트(앞줄 오른쪽)

반대 시위에도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그 시위가 “국경을 개방하라”는 슬로건과 선을 긋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문제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투쟁과 분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를 근거로 한 차별은 노동계급의 극소수가 아닌 다수의 경험이다.

우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약화시키고 극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독일 좌파당은 바겐크네히트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좌파당은 좌파당을 독일 사민당(SPD)의 대안으로 보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좌파당 지도부

좌파당 지도부는 가지각색의 정부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저항을 건설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민당이나 녹색당, 또는 둘 다와의 연정을 추구했다.

그러나 당시 좌파당과 사민당, 녹색당의 연정이었던 베를린 정부는 [대중의 불만과 변화 염원을 보여 준 총선] 결과에 부응하기를 거부했다. 선거적 이익을 위해 강력한 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선은 최근 좌파당

에서 두 가지 재앙적 후퇴를 낳았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 사회에서 우세했던 군국주의 반대 정서를 후퇴시키는 데 이용됐다.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의 평화운동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체로 침묵을 지켰고 “자신의” 정부에 거의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좌파당 또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공공연히 촉구하기도 했다.

둘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일으킨 전쟁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혹심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시위가 금지되고,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는 스카프나 상징물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배척받고, 도심의 아랍인 거주 지역이 경찰의 삼엄한 감시에 놓였다.

그러나 좌파당 지도부는 지체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활동가들은 당내에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 혁명적 좌파는 투쟁적이고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행동을 건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독일 사회의 깊은 불만에서 좌파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출처 Dave Gardner, 'Split from the Left Party will boost the racists' arguments' (2023. 10. 31) / 번역 이원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spaper
노동자 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2년) (주)레프트미디어 현재호: 서울다08179(주)2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월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4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지지와 연대가 더 커져야 한다

신정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7일 현재 7일째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파업 돌입과 동시에 공단 본부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높고 있다. 11월 6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강원도 원주 공단을 방문했고,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도 파업 연대 하루 동조 단식에 동참했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건보공단이 2년 전에 약속한 대로 고객센터를 하루빨리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2021년에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했었다. 직고용 대신 건보공단 소속인 기관을 따로 만들어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불만이었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속기관으로라도 신분이 전환되면 고용이 안정되고, 그



1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앞에서 열린 고객센터 파업 집회

바탕 위에 다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벌일 여지가 있을 거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단 측은 소속기관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 노동자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전환 방식을 내놓았다.

적반하장

공단 측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발표 시점인)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한 691명(전체 상담사의 약 40퍼센트)에 대해서 공개 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용 안정을 위해 소속기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는, 도리어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으로 내몰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정규직화 경쟁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몰라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의 상담사라는 자부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사들에게 이제 필요 없다며 공개 경쟁 채용에서 통과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목적이 아닙니까?”

공단 측은 공정성과 투명성 핑계를 댄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숙련 노동자들을 무자격자 취급하는 것이 무슨 공정이란 말인가? 이미 해당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 중인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켜 탈락시키는 것이 투명성과 무슨 관계가 있나?

공단 측이 경쟁 채용을 내세우는 진정한 의도는 소속기관 전환을 최대한 늦추고,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결국은 처우 개선 요구도 억누르려는 것이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경쟁 채용을 반대하며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를 요구하는 것은 옳다. 건강보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숙련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유지는 필요하다.

한편, 공단 측은 11월 1일 노조의 파업 돌입을 앞두고 대화를 하자고 하더니 10월 30일 저녁 원주 공단 본사 입구에 차벽과 방호벽을 세우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파업 돌입 후에는 조합원 400여 명을 집시법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반노동 표방하는 중앙정부를 믿고 공단 사측이 노사 합의마저 부정하는 것이 공정과 투명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보수 퇴행성

한편, 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인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은 파업에 대한 못마땅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파업과 요구를 반대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마치 고객센터 파업이 정규직에게 피해를 주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인 양 말하고 있다.

“[고객센터지부는] 불필요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공단 사측은 우리[정규직] 조합원들

의 업무량 가중 해소와 민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라.”

2021년 파업 때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기는커녕 파업 파괴자 노릇을 하더니, 이번에 또 비슷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정규직-비정규직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경영진들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특히, 파업 자체가 정규직과의 갈등 요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 공단 측이 공단 본부 앞 파업 집회와 농성을 고소하는 등 탄압을 하는 때에 완전히 부적절한 입장이다.

사실 공단 측이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이런 입장을 익히 알기 때문에 더더욱 오만하게 버티는 것이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은 정규직 노동자의 조건 개선에도 하향 압력이 되기 쉽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의 조건을 공격해 왔다.

예컨대, 외주화가 확대되며 비정규직이 열악한 처지로 내몰릴 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가 계속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나 몰라라 외면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압박 등 임금을 억누르려 한다.

공동의 적에 맞서 힘을 합친다면 사측과 정부의 공격을 막고 조건을 개선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11월 8일 원주에서,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1일 서울에서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김문성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재정 논쟁이 벌어졌다. 불황기에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떨어져 왔다.(국회 예산정책처)

여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은 정부 예산안을 균형 재정이라고 옹호하면서 이재명의 주장을 대중융합주의(“포퓰리즘”)라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윤석열의 방향은 명백히 긴축재정이다. 윤석열은 재정 적자 폭을 강제로 억제하는 재정준칙도 법제화하려 한다.

자랑

윤석열은 자신이 23조 원을 삭감했다고 자랑했다. 심지어 친기업 예산인 각종 R&D(연구·개발) 예산도 삭감됐다. 방위산업청이 관할하는 무기 기술 R&D 예산도 일부 줄었다.(대신 국군의날 행사 예산은 100억 원이나 늘렸다.)

이처럼 R&D 예산과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도 줄자, 관련 업계들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윤석열은 이렇게 변명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또한 “긴축의 이유 중 하나로 약자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복지국가소사이터티, 〈프레시안〉, 11월 6일자)

일부 늘어난 복지 예산도 홍보용에 가까운 일회성이고, 오히려 체계적인 복지, 보건 예산이나 제도는 약화됐다는 것이다. 코로나 거점 병원들에 대한 지원도 0원이다. 병사 월급을 올려 준다더니, 병사 복지 예산은 100억 원이나 줄었다. 조삼모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들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삭감했는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복지 예산으로 쓰인다. 윤석열은 복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국민연금의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의 긴축이 친기업·국방 예산까지 건드리는 것은 정부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 예산안 분석”을 보면, 올해 정부의 수입은 예상보다 60조 원이나 줄었다. 법인세 감소가 25조 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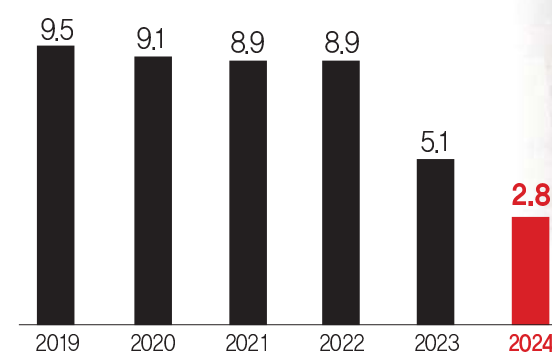
정부 수입 감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효과이자 경제 상황 악화의 징표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1997년 금융 공황 때 외환보유액이 바닥 나서 그로기 상태로 내몰렸었다. 그 때문에 재정 적자에 더 민감한 것이다.

결국 기업 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복지·교육·보건·고용 지출을 줄여서 만회하는 것이다. 기업주와 부자들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게 고통을 전가해 삶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윤석열이 감세를 하면서도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방식은 알짜 토지나 공기업을 팔아 넘기는 국유재산 매각이다. 당장의 정부 수입은 늘리지만, 장기적으로 부자들에게 치부할 수단과 기회를 넘겨 주는 것이다.

이처럼 긴축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의 임금은 하위직과 똑같은 비율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연도별 예산 증가율 (단위: 퍼센트)



재정 긴축은 기업주와 부자들을 위해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

민주당 측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데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안이 서민층을 위한 재정 확대인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원상 회복,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민관 협력 금리 인하, 청년 대중교통 3만 원 패스 등 3조 원가량의 예산 추가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에서 겨우 3조 원(0.4퍼센트) 증액하는 것을 두고 확대 재정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게다가 민주당은 현 정부 예산안에서 4조~5조 원을 삭감하고 일부 R&D 예산과 복지 예산을 회복하는 예산 심의 방침을 밝혔다.

고위 관료 임금 인상, 검찰 등 권력 기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은 필요한 일이지만, 전체로 보면 민주당의 대안도 “균형 재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은 11월 6일 윤석열에게 경제성장률 3퍼센트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모두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정 투입

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선 청년·아동 관련 예산(“생산적 복지”)은 조금 늘 수도 있지만, 가령 노인 돌봄 예산이나 노후 연금처럼 기업 이윤의 관점에서 낭비적인 예산들은 옹호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자 증세를 일관되게 추구할 수도 없다. 사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법인세를 인하했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전 국민 지원도 균형 재정을 이유로 거부했으며, 재정준칙 제정을 시작했다.

특히 예산 심의는 막판에 가면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한 그들은 한국 지배계급의 낙점을 받아 이들의 국가(자본주의적 국가)를 통해 그러려고 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 때문에 그들은 국힘과 도inken진 재정 정책을 펼 것이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온라인 토론회 뜨거운 현안부터 이론까지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